

# 임상실습 중 치위생과 학생들이 경험한 언어폭력이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이명주<sup>1\*</sup> · 이효진<sup>1</sup> · 천유송<sup>2</sup> · 권소진<sup>2</sup> · 권선화<sup>1</sup>

마산대학교 치위생과<sup>1</sup> · 마산대학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sup>2</sup>

## 1. 서론

현대 사회는 다양한 폭력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언어적 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건의료현장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보건의료직 중에서도 치과위생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면접촉과 실천을 중심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사, 동료 치과위생사 및 직원들의 노력을 환자에게 집중시키게 하는 조정역할을 수행한다<sup>1)</sup>. 치과위생사가 언어폭력 경험이 있으면 정서적 반응과 이직의도를 증가시키고<sup>2)</sup>,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감정이나 성적 상처를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직무만족 저하, 이직의도 증가, 생산성 감소로 부정적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sup>3)</sup>. 2016년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47.6%가 직장 내에서 불쾌한 언행을 경험한 것으로 그 중 언어폭력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폭행 5.5%, 성폭력은 1.1%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언어폭력

을 경험하는 대상으로는 환자로부터가 7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보호자 65.6%, 의사 36.5%, 상급자 29.1% 순으로 나타났다<sup>4)</sup>. 치과위생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치위생과 대학생들은 치과위생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상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한 상황 대처능력으로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의 다양한 폭력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잠재적 취약군에 있다<sup>5)</sup>. 더불어 임상실습 현장에서 가해지는 폭력은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sup>6)</sup>,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치위생업무에 임하게 되면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를 갖기 쉽다<sup>7)</sup>.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확신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진로정체감의 확립은 대학생활 적응을 높여 진로 및 발달과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로 향후 치과위생사로서 긍정적인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생은 정체감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생을 계획하는 시기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시기이다<sup>8)</sup>. 특히 보건계열 전공 학생들은 학업과 임상실습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 형성은 학업 스트레스 및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sup>9)</sup>, 특히 치위생

접수일: 2021년 8월 26일 최종수정일: 2021년 9월 30일

게재 확정일: 2021년 10월 10일

교신저자: 이명주, (5121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640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Tel: 055-230-1280, Fax: 055-230-0144  
E-mail: mjlee@masan.ac.kr

과 대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대학생 때부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이 기초가 되어 자신의 전문적 실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sup>7)</sup>.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는 실패나 타인의 공격과 같은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우울과 같은 부정적 반응의 강도가 크게 나타나며, 스트레스의 영향은 자아존중감 저하를 유발하고 이는 우울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갖는다<sup>10)</sup>. 그러므로 치위생과 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게 되는 언어폭력은 자아존중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진로정체감 저하와 연결되는 매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치위생과 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한 언어폭력은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등 다양한 변수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치위생과 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한 언어폭력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관련 매개변인을 규명하여 향후 효과적인 임상실습 환경의 조성 지침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언어폭력 경험이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언어폭력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중 언어폭력 경험 정도를 파악하고,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임상실습의 구성과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윤리적 승인(IRB No: 1040460-A-2020-028)을 받은 후 경남에 소재한 M대학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치위생과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20년 9월 1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치위생과 내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치위생과 학생 20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22부를 제외한 18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2. 연구 도구 및 방법

본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언어폭력 경험에 대한 측정, 언어폭력 후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에 대한 측정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폭력 측정은 Nam 등<sup>11)</sup>이 개발한 17개 문항을 기초로 Ku<sup>12)</sup>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치과외과의 언어폭력 13문항,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 13문항, 환자와 보호자의 언어폭력 13문항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였고, 총 39문항으로 각 항목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하여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폭력이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0.96(치과외과: 0.91, 치과위생사: 0.91, 환자와 보호자: 0.94)이었다.

자아존중감의 측정도구는 Rosenberg<sup>13)</sup>가 개발하고 Lee와 Won<sup>14)</sup>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로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3, 5, 8, 9, 10번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으며,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0.88이었다.

진로정체감 측정도구는 Holland 등<sup>15)</sup>이 개발한 진로상황검사(My Vocational Situation, MVS)의 하위척도인 정체감 척도 18문항을 Kim와 Kim<sup>16)</sup>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Kwon과 Kim<sup>17)</sup>이 한국 간호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한 14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는 6번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역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0.87이었다.

##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임상실습 중 치위생과 학생들이 경험한 언어폭력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을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와 t-tes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들이 경험한 언어폭력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며, 치위생과 학생들이 경험한 언어폭력이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언어폭력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언어폭력 경험을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별로는 21세가 51.7%로 가장 많았으며, 입학 동기별로는 높은 취업률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43.8%, 만족하지 않는다 56.2%로 나타났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49.5%, 만족하지 않는다는 50.5%로 나타났다. 학교성적별로는 중위권 학생이 67.2%로 2/3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하위권 18.3%, 상위권 14.4% 순이었

다. 졸업 후 희망진로별로는 치과병원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치과의원 27.2%, 보건소 및 기타 11.1%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언어폭력 경험은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은 학생일수록 임상실습 중 치과의사(F=4.75,  $p < .05$ ), 환자 및 보호자(F=4.55,  $p < .05$ )부터 받은 언어폭력 경험이 많았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별로는 임상실습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만족하는 학생보다 임상실습 중 치과위생사( $t = -3.32$ ,  $p < .01$ ), 환자 및 보호자( $t = -2.21$ ,  $p < .05$ )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경험이 많았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2.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치위생과 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병원에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받은 언어폭력에 대해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다. '반말을 한 적이 있다'(F=24.09,  $p < .001$ ), '강압적인 명령조로 말을 한 적이 있다'(F=16.03,  $p < .001$ ), '외모나 신체상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한 적이 있다'(F=4.84,  $p < .01$ ), '성격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F=7.61,  $p < .01$ ), '능력을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F=13.11,  $p < .001$ ),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F=10.56,  $p < .001$ ), '다른 치과위생사에 관해 듣기 거북한 험담을 한 적이 있다'(F=8.76,  $p < .001$ )는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하였으며, 환자 및 보호자의 언어폭력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보다 적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언어폭력 경험은 치과위생사로부터 당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2.09,  $p < .001$ ).

Table 1.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Verbal abuse

Scales	Categories	N(%)	Dentists		Dental hygienist		Patients	
			Mean ± SD	t or F(p)	Mean ± SD	t or F(p)	Mean ± SD	t or F(p)
Age(y)	20	45(25.0)	1.17 ± 0.25 <sup>a</sup>	4.75* (0.010)	1.38 ± 0.57	1.14 (0.322)	1.13 ± 0.34 <sup>a</sup>	4.55* (0.012)
	21	93(51.7)	1.30 ± 0.41 <sup>ab</sup>		1.45 ± 0.51		1.18 ± 0.34 <sup>ab</sup>	
	≥22	42(23.3)	1.46 ± 0.61 <sup>b</sup>		1.57 ± 0.69		1.38 ± 0.62 <sup>b</sup>	
Motivation for admission	Grades	17(9.4)	1.10 ± 0.12	1.88 (0.134)	1.23 ± 0.24	1.20 (0.313)	1.10 ± 0.13	0.77 (0.514)
	Ambient recommendation	45(25.0)	1.37 ± 0.52		1.53 ± 0.68		1.28 ± 0.57	
	A high employment rate	104(57.8)	1.32 ± 0.45		1.47 ± 0.57		1.20 ± 0.39	
	Aptitude and interest	14(7.8)	1.20 ± 0.32		1.45 ± 0.41		1.20 ± 0.42	
Major satisfaction	Yes	79(43.8)	1.26 ± 0.38	-1.28 (0.202)	1.41 ± 0.56	-1.16 (0.249)	1.17 ± 0.32	-1.11 (0.269)
	No	101(56.2)	1.34 ± 0.49		1.50 ± 0.58		1.24 ± 0.5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Yes	89(49.5)	1.26 ± 0.37	-1.29 (0.198)	1.32 ± 0.42	-3.32** (0.0010)	1.14 ± 0.28	-2.12* (0.035)
	No	91(50.5)	1.34 ± 0.51		1.60 ± 0.66		1.28 ± 0.53	
Grade	High	26(14.4)	1.22 ± 0.35	0.53 (0.587)	1.46 ± 0.69	1.21 (0.300)	1.20 ± 0.32	0.09 (0.915)
	middle	121(67.2)	1.32 ± 0.46		1.42 ± 0.53		1.21 ± 0.44	
	low	33(18.3)	1.32 ± 0.45		1.60 ± 0.60		1.24 ± 0.49	
Educational period	Dental clinic	49(27.2)	1.27 ± 0.40	1.09 (0.355)	1.35 ± 0.43	0.98 (0.403)	1.16 ± 0.40	1.33 (0.265)
	Dental hospital	89(49.4)	1.27 ± 0.41		1.49 ± 0.60		1.20 ± 0.41	
	Hospital/University hospital	22(12.2)	1.43 ± 0.61		1.51 ± 0.60		1.37 ± 0.55	
	Health center/etc.	20(11.1)	1.39 ± 0.47		1.57 ± 0.70		1.20 ± 0.42	

\*p &lt; .05, \*\*p &lt; .01 Analyzed by t-test and one-way ANOVA

Table 2. Verbal abuse by dentists, Dental hygienist, patients

(Unit : Mean ± SD)

No.	Items of verbal abuse	Dentists	Dental hygienist	Patients	F	p
1	Has been angry with me and swear words.	1.22 ± 0.56	1.31 ± 0.68	1.23 ± 0.58	1.05	0.349
2	Has used disrespectful language with me.	2.28 ± 1.24	2.74 ± 1.37	1.82 ± 1.16	24.09***	<0.001
3	Has said things to indicate that my line of work is trivial.	1.25 ± 0.55	1.29 ± 0.64	1.22 ± 0.60	0.66	0.517
4	Has forcefully commanded me to do something.	1.46 ± 0.90	1.76 ± 1.08	1.23 ± 0.59	16.30***	<0.001
5	Has used threatening words with me.	1.16 ± 0.46	1.18 ± 0.55	1.12 ± 0.43	0.72	0.488
6	Has said sexually insulting words to me.	1.12 ± 0.38	1.16 ± 0.48	1.11 ± 0.39	0.55	0.580
7	Has made sarcastic remarks on my appearance or physique.	1.18 ± 0.47	1.28 ± 0.68	1.11 ± 0.39	4.84**	0.008
8	Has criticized my personality.	1.17 ± 0.49	1.33 ± 0.74	1.11 ± 0.38	7.61**	0.001
9	Has disdainfully spoken to me as if I was incapable.	1.24 ± 0.55	1.48 ± 0.82	1.16 ± 0.47	13.11***	<0.001
10	Has disparaged my educational or family background.	1.16 ± 0.47	1.22 ± 0.55	1.13 ± 0.44	1.77	0.172
11	Has spoken to me in a way that scared me.	1.21 ± 0.54	1.43 ± 0.87	1.13 ± 0.45	10.56***	<0.001
12	Has spoken ill of other nurses (seniors, colleagues, and juniors) to me using language uncomfortable to listen to.	1.19 ± 0.50	1.41 ± 0.85	1.14 ± 0.46	8.76***	<0.001
13	Has used disrespectful, coarse, or violent language with my seniors, colleagues, or juniors in front of me.	1.29 ± 0.67	1.39 ± 0.79	1.24 ± 0.66	2.09	0.125
Total		1.30 ± 0.45	1.46 ± 0.57	1.21 ± 0.43	12.09***	<0.001

\*\*p &lt; .01, \*\*\*p &lt; .001 Analyzed by the one-way ANOVA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54로, 치위생과 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별로는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전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5.74$ ,  $p<.001$ ). 임상실습 만족도별로는 임상실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

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4.48$ ,  $p<.001$ ).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59로, 치위생과 학생들은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별로는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높았으며, 전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8.72$ ,  $p<.001$ ). 임상실습 만족도별로는 임상실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높았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7.16$ ,  $p<.001$ ).

Table 3.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Scales	Categories	N(%)	Self-Esteem		Career Identity	
			Mean $\pm$ SD	t or F(p)	Mean $\pm$ SD	t or F(p)
Age(y)	20	45(25.0)	3.58 $\pm$ 0.63	2.59 (0.078)	2.58 $\pm$ 0.50	0.43 (0.654)
	21	93(51.7)	3.44 $\pm$ 0.66		2.57 $\pm$ 0.40	
	$\geq 22$	42(23.3)	3.72 $\pm$ 0.76		2.65 $\pm$ 0.58	
Motivation for admission	Grades	17(9.4)	3.57 $\pm$ 0.81	1.52 (0.212)	2.61 $\pm$ 0.44	2.16 (0.094)
	Ambient recommendation	45(25.0)	3.49 $\pm$ 0.71		2.52 $\pm$ 0.44	
	A high employment rate	104(57.8)	3.51 $\pm$ 0.63		2.58 $\pm$ 0.48	
Major satisfaction	Aptitude and interest	14(7.8)	3.91 $\pm$ 0.78	5.74*** ( $<0.001$ )	2.88 $\pm$ 0.43	8.72*** ( $<0.001$ )
	Yes	79 (43.8)	3.85 $\pm$ 0.68		2.88 $\pm$ 0.40	
	No	101(56.2)	3.30 $\pm$ 0.59		2.36 $\pm$ 0.39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Yes	89 (49.5)	3.76 $\pm$ 0.69	4.48*** ( $<0.001$ )	2.81 $\pm$ 0.42	7.16*** ( $<0.001$ )
	No	91(50.5)	3.33 $\pm$ 0.62		2.37 $\pm$ 0.41	
Grade	High	26(14.4)	3.65 $\pm$ 0.69	2.21 (0.113)	2.71 $\pm$ 0.43	2.25 (0.108)
	middle	121(67.2)	3.58 $\pm$ 0.67		2.60 $\pm$ 0.49	
	low	33(18.3)	3.32 $\pm$ 0.72		2.46 $\pm$ 0.41	
Educational period	Dental clinic	49(27.2)	3.41 $\pm$ 0.74	1.74 (0.160)	2.61 $\pm$ 0.45	1.65 (0.179)
	Dental hospital	89(49.4)	3.60 $\pm$ 0.62		2.63 $\pm$ 0.48	
	Hospital/University hospital	22(12.2)	3.40 $\pm$ 0.79		2.59 $\pm$ 0.45	
	Health center/etc.	20(11.1)	3.75 $\pm$ 0.67		2.38 $\pm$ 0.50	

\*\*\* $p<.001$  Analyzed by t-test and one-way ANOVA

### 3.4. 언어폭력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

임상실습 중 경험한 언어폭력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치과 의사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r=-.146$ ,  $p<.05$ ), 치위생사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r=-.151$ ,  $p<.05$ )은 자아존중감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경험은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치과 의사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r=-.242$ ,  $p<.01$ )과 치위생사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r=-.237$ ,  $p<.01$ )은 진로정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경험은 진로정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 3.5. 언어폭력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언어폭력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Table 5와 같다. 언어폭력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회귀모형 결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3.6. 언어폭력경험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언어폭력경험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Table 6과 같다. 언어폭력경험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회귀모형 결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Verbal abuse, Self-Esteem, Career Identity

Variable	Dentist verbal abuse	Dental hygienist verbal abuse	Patients verbal abuse
Self-Esteem	-0.146* (0.0498)	-0.151* (0.043)	-0.093(0.213)
Career Identity	-0.242** (0.001)	-.237** (0.001)	-0.136(0.070)

\*p<.05, \*\*p<.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5. The effect of verbal violence experienced by dental hygiene students on Self-Esteem (N=180)

Variable	Self-Esteem			
	B	β	t	p
Dentist verbal abuse	-0.178	-0.116	-0.917	0.361
Dental hygienist verbal abuse	-0.125	-0.104	-0.999	0.319
Patients verbal abuse	0.086	0.054	0.479	0.633
Constants	3.849		22.965***	<0.001
R <sup>2</sup>		0.028		
F(p)		1.660(0.177)		

\*\*\*p<.001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Table 6. The effect of verbal violence experienced by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Identity (N=180)

Variable	Career Identity			
	B	β	t	p
Dentist verbal abuse	-0.247	-0.235	-1.908	0.058
Dental hygienist verbal abuse	-0.125	-0.152	-1.499	0.136
Patients verbal abuse	0.142	0.129	1.172	0.243
Constants	2.924		26.079***	<0.001
R <sup>2</sup>		0.075		
F(p)		4.774** (0.003)		

\*\*p<.01, \*\*\*p<.001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 4. 고찰

최근 대학에서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전공 분야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전공 교육에 있어 이론과 실습을 제공하는 강의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로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임상적 판단 등을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경험하는 임상실습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임상현장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환자 및 환자 보호자 등의 상호관계 속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제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치위생과 학생들은 심리적인 부담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다양한 형태의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과정에서 언어폭력에 대한 경험은 자아존중감 저하와 진로정체감을 확립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 간호학 분야에서는 언어폭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무의 환경이 다른 임상실습을 하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중 언어폭력 경험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다양한 형태의 언어폭력에 대한 치위생과 학생의 대처능력, 자아존중감 향상과 긍정적인 진로정체감을 확립하여 안전한 임상실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언어폭력 경험을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학생보다 임상실습 중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Jeong과 Lee<sup>18)</sup>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도 임상실습 시 상당수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폭력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Jang<sup>19)</sup>은 최근 들어 병원 내 폭력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언어폭력 피해

가 심각하며, 정신적 고통과 함께 부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언어폭력은 신체폭력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이나 인식하는 심각성은 낮은 편이다. Im 등<sup>20)</sup>은 언어폭력의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들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부심, 학습에 대한 열의, 개인적 성장에 상처를 입거나 심각한 회의에 빠지기도 하며, 지속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임상실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임상실습 교육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중 언어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만일, 언어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은 치과의사와 환자 및 보호자보다 치과위생사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경험이 많은 것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Jung 등<sup>21)</sup>은 언어폭력을 가한 사람은 간호사, 환자, 환자의 보호자 및 기타 직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은 실습 중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 타 의료진과 접할 기회보다 간호사의 업무를 관찰하고 그들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면서 실습을 진행하게 되며 간호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 Kim 등<sup>22)</sup>은 실제로 간호사는 업무시간 중 자신이 맡은 간호실무 수행과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실습 지도까지 병행해야 하는 역할 부담이 크며, 이에 동반된 스트레스는 아직 간호지식이 미숙하고 간호기술에 서투른 간호대학생에게 언어폭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언어폭력의 주된 가해자가 간호사인 이유는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학생이 가장 많이 대면하는 대상이 간호사이기 때문이고, 과중한 업무와 더불어 간호학생 교육이라는 이중부담이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보이며 언어폭력을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육자와 학습자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닌 학습자를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 담당자인 치과위생사는 자신

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치위생에 관한 지식과 술기가 완전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태도가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실습병원의 실습 담당자인 치과위생사에게 정확한 실습 지도 가이드를 제공하여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치과위생사로부터 받은 언어폭력으로 는 반말과 강압적인 명령조의 말, 외모나 신체상에 대해 비꼬는 말과 성격에 대해 비난하는 말, 능력을 무시하는 말과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말, 다른 치과위생사에 관해 듣기 거북한 험담을 한 적이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Im 등<sup>20)</sup>의 연구에서 경험된 언어폭력은 반말, 명령조, 학생무시 발언 순으로 많았다. 반말과 높임말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반말은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실습 중인 간호대학생을 아랫사람으로 여기며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병원 근무자들은 간호대학생을 인격체로서 대하도록 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sup>22)</sup>. Cho 등<sup>23)</sup>은 언어폭력의 세부항목으로는 반말과 명령조의 순서로 많은 경험을 하였는데 이는 반말과 높임말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자신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반말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거나 간호서비스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강압적인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하는 예가 상당히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Im 등<sup>20)</sup>의 연구에서도 언어폭력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반말과 명령조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직사회에서 어리거나 아랫사람에게 강압적이고 명령적인 표현이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에 손상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환경 특성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환자 및 보호자 등으로부터 겪게 되는 언어폭력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임상실습 전 적합한 교육과 실습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치위생과 학생들이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자기주장 훈련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과 임상실습 교육

자인 치과위생사와 학습자인 치위생과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에 대해 분석한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은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이 높았으며, 전공과 임상실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이 만족하지 않은 학생보다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이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Jung 등<sup>24)</sup>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적응이 되어감에 따라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임상실습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시사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과 발달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자아존중감은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제시되고 있는데<sup>24)</sup>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기평가나 자기능력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자기수용, 자기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진로정체감을 확립하여 높은 임상 수행능력을 보여주며 대상자에게 간호의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실무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 Shin<sup>26)</sup>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틀을 지니므로 항상 즐거운 정서 상태를 경험하며, 업무공간에서도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능, 숙련도, 기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성공에 대한 잠재력을 강화시켜 일상과 직무의 만족 정도를 향상시키며, 치과위생사의 긍정적인 정서 또한 결국 직무 만족으로 연결되어 직무 생활에 호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 전공분야의 학업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 등이나 전공분야의 면허취득을 준비과정



에서의 다양한 경험들로 인하여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져 자아존중감도 높다<sup>27)</sup>. 따라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불만족일 경우 치위생과 학생들은 향후 전공 불만족, 취업 스트레스, 학업 포기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위생과 학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대한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학습법 지원 등을 통해 학업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전 자아존중감을 높여 긍정적인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아에 대한 긍정적 개념형성과 자기계발 및 자아존중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차원에서 개발하고 임상실습 현장 지도에 대한 효율적인 상담과 임상실습 적응에 대한 평가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중 병원에서 언어폭력 경험과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과 관계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은 임상실습 중 치과외사와 치과위생사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경험과 임상실습 중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Jung 등<sup>24)</sup>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중인 간호대학생이 언어폭력 경험이 있으면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언어폭력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여 자아존중감을 진로정체감의 매개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언어폭력 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언어폭력이 직업만족도를 감소시키고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초래하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 Cho 등<sup>23)</sup>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언어폭력 경험과 자아존중감이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간호대학생의 언어폭력 경험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한 언어폭력 정도가 심각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낮아지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일부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m 등<sup>20)</sup>은 특히 언어폭력 유형 중 다른 사람에게 언어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는데, 폭력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언어폭력을 목격했던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되어 다시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어폭력을 실제로 당한 것만큼 간접 경험도 정신적인 고통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함께 다뤄져야 하며 이러한 폭력경험은 간호 대학생에게 학업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긍정적 임상실습 경험은 치위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증가시키므로 효과적인 임상실습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유지와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중 언어폭력이 발생하지 않게 힘써야 한다. 만일 언어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 전 교육을 실시하며,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를 학교와 임상실습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주관적인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한 분석으로 임상실습 중 언어폭력경험은 주관적인 인식과 실습환경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경남, 부산광역시의 치과 병·의원에 임상실습을 한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전체 치위생과 학생들의 언어폭력 경험을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간호학생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 경험의 선행연구는 많으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는 희소하여 본 연구에 대한 비교가 부족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향후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진로정체감을 증진시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와 임상병원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언어폭력에 대한 예방을 위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대처방안 마련하여 전문적인 치과위생

사를 향상하기 위한 보다 안전한 임상실습의 필요성을 찾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언어폭력 경험이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M대학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임상실습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이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학생보다 임상실습 중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았다. 둘째, 학생들은 치과의사와 환자 및 보호자보다 치과위생사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경험이 더 많았다. 셋째, 전공과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학생이 만족하지 않은 학생보다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이 높았다. 그리고 학생들은 임상실습 중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이 낮았다. 따라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전략이 함께 구축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1. Moon SJ. Effect of dental hygienists' emotional labor o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2014.
2. Lee JH et al. The help of experienced dental hygienists turnover verbal abuse and emotional reaction, and the resulting relationship. *J Dent Hyg Sci* 2014;14(4): 563–570. <https://doi.org/10.17135/jdhs.2014.14.4.563>
3. Buback D. Assertive training to prevent verbal abuse in the OR, *Association of Operating Room Nurse, ARON J* 1991;79: 148–164.
4. Lee JS et al. A rea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health care worker. Seoul: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2016;55–56.
5. Kim SH et al. Verbal Abuse, verbal abuse response, and stress on verbal abuse of nursing student in clinical training.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atholic University of Taegu Hyosung* 2011;10: 249–266.
6. Im YS et al. Verbal abuse and lowered career ident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6;18(4): 2315–2328.
7. Cho H, Lee GY.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 Health Nurs*. 2006;20(2): 163–173.
8. Amett JJ.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or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2000;55(5): 469.
9. Woo JJ, Seo EJ. Experience of violence in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6): 305–313.
10. Kim HS.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to adolescents' depression.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14;21(3): 409–437.
11. Nam KD et al.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verbal abuse scale for operating room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005;11: 159–172.
12. Ku JK. A study on the burnout of casino dealer: focused on native deal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uwon, 2007.
13.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4. Lee HJ, Won HT.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paranoia scale.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5;1: 277–290.

15. Holland JL et al. My vocational situation: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orporated, 1980.
16. Kim BW, Kim KH.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J Korea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97;9(1): 311–333.
17. Kwon YH, Kim CN.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atudents. *J Korean Community Nurs* 2002;13(2): 216–229.
18. Jeong YH, Lee KH. Effect of verbal abuse experience, coping style and resilience on emotional response and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um among nursing students. *J Digital Convergence* 2016;14(3): 391–399.
19. Park JH, Jang KA. The effects of verbal violence on stress among dental hygienists and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 Korean Soc Dent Hyg* 2019;19(2): 241–249.
20. Im YS et al. Verbal abuse and lowered career ident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6;18(4): 2315–2328.
21. Jung HJ et al. Experience, emotional reaction and coping behavior of verbal abuse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ication* 2013;8(2): 99–108.
22. Kim SH et al. Verbal abuse, verbal abuse response, and stress on verbal abuse of nursing student in clinical training.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011;10: 249–266.
23. Cho YH et al. Experience of verbal abuse, emotional response, and ways to deal with verbal abuse against nurses in hospital. *J Korean Occupational Health Nurs* 2011;20(3): 270–278.
24. Jung JS et al.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 *J Korean Acad Soci of Nurs Educ* 2014;22(1): 27–36.
25. Chung MS. The Relations of Self-Esteem, Practical Performance, and Practic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 2008;26(1): 60–68.
26. Shin SH.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of health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2;12: 217–225.
27. Jeon SC. The influence of high school students' anxiety and depression on self-esteem: focused on the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n the 3rd gra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san 2006.

## ABSTRACT

## The effect of verbal violence experienced by dental hygiene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on their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Myeong-Ju Lee<sup>1\*</sup> · Hyo-Jin Lee<sup>1</sup>

Yu-Song Cheon<sup>2</sup> · So-Jin Kwon<sup>2</sup> · Sun-Hwa Kwon<sup>1</sup>

<sup>1</sup>Dep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sup>2</sup>B.A. in Masan Colleg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tensified Course of Major)

**Background:** To confirm verbal violence experi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o verify its influence on their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self-reported questionnaire targeting 180 dental hygiene students at M University.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WIN 25.0.

**Results:** Older students reported that they experienced verbal violence more frequently during clinical training, especially those who were dissatisfied with clinical training. The students experienced verbal violence more frequently from dental hygienists than from dentists and patients. Dental hygiene students had high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The students who were majorly satisfied with clinical training had higher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than those who were dissatisfied. Dental hygiene students had lower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when they experience verbal violence more frequently from dentists and dental hygienists during clinical training and clinical practice.

**Conclusion:** An intervention program needs to be developed to prevent verbal violence against dental hygiene students and a strategy to increase their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is required.

**Keywords:** Dental hygiene students, Verbal violence, Career identity, Self-esteem